

열악한 지역 공연계 '예술 불씨' 살린다

전남대 음대 출신 '아멜리 앙상블' 창단...대표 류혜인 등 5명 멤버 사비로 창단 연주회... "청년 예술가들 지원사업, 민·관 관심 절실"

"아멜리"는 프랑스어로 끊임 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지역공연계는 양적으로 기회 자체가 부족하죠. 그럼에도 광주 안에서 뜻 맞는 청년예술가들이 머리를 맞대 '예술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다면, 광주도 좋은 예술의 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아멜리앙상블 대표 류혜인)

'예향 광주'를 공표한지 오래지만, 광주에 적(籍)을 두고 새롭게 창단하는 악단을 보기란 기쁨에 흥 나듯 하다. 예술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서울에 비해 공연 기회가 부족한 것이 사실.

이처럼 기울어진 지역 공연예술계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 해답을 '지역 밖'이 아니라 '광주 내부'에서 찾는 오케스트라가 창단해 화제다. 지난 5일 창단 연주회를 기점으로 광주 청년예술가들이 주축이 돼 만든 '아멜리 앙상블'이 그 주인공.

구성원 전체가 전남대 음대 동기 출신이면서 해외 대학원 유학과 등이 대거 포함됐다는 점은 '지역으로의 유턴'을 결정한 이유를 궁금하게 했다.

지난 20일 오전 광주에 도착한 아멜리앙상블은 리허설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23일 광주에 도착한 4중 앙상블에서 열리는 '아멜리

앙상블 초청 연주회'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 이들은 성악가곡 윤학준의 '마중'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편곡해 연주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창단한 오케스트라 앙상블이라기에는 오래 합을 맞춰 온 느낌을 줬다.

플룻, 비올라, 호른, 첼로, 오보에 세션으로 구성된 소담한 오케스트라 '아멜리 앙상블'은 전남대 음대를 졸업한 류혜인을 중심으로 표지훈, 신세민, 이용학, 이하민이 멤버로 있다.

"얼마 전 금호아트홀에서 진행했던 창단 기념 연주회도 회비를 모아서 진행했어요. 심지어 공연 끝자락에는 이마저도 부족해 추가로 각출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죠. 광주 공연예술계 현실은 마냥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려움을 겪는 청년 예술가들에게 버팀목이 되는 지원사업, 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호르니스트 이용학)

이들은 해외 등지에서 화려한 커리어를 쌓아왔다. 팀 대표인 오보이스트 류혜인은 독일 쾰른음대(아헨)에서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플루티스트 표지훈은 광주시향 객원단원, 스물무직앙상블 단원 등을 역임했다.

호르니스트 이용학은 광주호른사운드 단원, 광

주 클랑심포니 수석단원 등을 역임했으며 첼리스트 이하민은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국립음대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객원단원 최한별은 전남대 음악학과를 나와 한양대 음악대학 석사과정 졸업.

이처럼 부족하지 않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광주 유턴'을 결정한 것은 한편으로 '지역 예술계의 가능성을 믿어서였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멤버들에게 처음 음악의 길을 걷게 된 계기를 묻자 대부분은 교회봉사나 관악부, 청소년 오케스트라 참가 등을 발단으로 꼽았다. 첼리스트 이하민은 "처음에는 바이올린을 배웠지만 솔직히 앉아서 연주하고 싶었다"며 "묵직한 악기 첼로는 앉아서 편하게(?) 연주할 수 있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며 무트 쉬인 답변을 내놓고 웃어 보였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광주·전남 지역에서 많은 공연에 참여하고 싶다"며 "지금은 사비로 연주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앞으로 사·도민들에게 예술 공연을 자주 선보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예술은 늘 배고프다", "지역예술계는 중앙에 비해 열악하다" 따위의 명제들은 광주 공연예술의 경쟁력을 은연 중에 퇴행시켜온 것 같다.

그럼에도 뜻 맞는 예술가들이 호기롭게 창단한 '아멜리 앙상블'은 그 존재 자체로 지역 공연예술계에 긍정적 메시지를 함의하는 듯했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시모나구치오 작 'Boxes and Mirrors VIII'



실라펠리치 작 'CONTRASTS'

다산미술관서 만나는 '뉴욕, 이태리, 한국'

익산 W미술관 소장품 교류전...시모나구치오·실라펠리치 작품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모나구치오, 실라펠리치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이번 전시는 화순 다산미술관(관장 이정남)이 문화 교류 일환으로 전북 익산의 W미술관과 진행하는 교류 전시로, W미술관의 소장품을 선보이는 자리다. 다산미술관과 W미술관은 지난 2022년 미술관의 문화적 발전과 교류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오는 11월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 주제는 '뉴욕, 이태리, 한국'. W미술관의 소장품 전시는 밀라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작가 시모나구치오, 실라펠리치의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직접 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실라펠리치 작 'CONTRASTS'는 대조적인 피사체를 조점화한 작품이다.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표현된 식물들은 색상의 대비만큼이나 무성한 가시의 존재 유무에 따라 극명하게 다른 분위기를 전한다.

반면 시모나구치오의 'Boxes and Mirrors'는

거울을 통해 보여지는 인물의 뒷모습과 화면에 비치는 불투명한 이미지를 통해 환상적이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밖에 다산미술관은 소장품 및 지난 전시 작품을 3D로 구현해 거울이 불변한 관람객이 볼 수 있도록 전시 및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1층 전시실에는 장애인을 위한 전시 공간을 마련해 누구나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현재 영상으로 작품을 감상 할 수 있는 미디어월은 물론 키오스크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적인 요소 지원,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이정남 다산미술관 관장은 "뉴욕, 이태리, 한국'전은 한국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뉴욕, 이탈리아 미술을 지역민 뿐만 아니라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산미술관과 W미술관은 전남과 전북을 잇는 미술관의 문화적 발전과 교류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에 도착한 4중 앙상블을 앞두고 리허설을 하고 있는 아멜리 앙상블. 왼쪽부터 표지훈(플룻), 신세민(비올라), 이용학(호른), 이하민(첼로), 류혜인(오보에).

'베누스토, 낭만의 거장을 마주하다'

베누스토 오케스트라, 28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라흐마니노프 탄생 150주년을 맞아 지역에서 다양한 기념음악회가 열리고 있는데 가운데 베누스토 오케스트라 광주·전남지부(회장 오하정)가 마련하는 공연이 눈길을 끈다.

오는 28일 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에서 막을 올리는 '베누스토, 낭만의 거장을 마주하다'가 그것.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1873-1943)는 러시아계 미국인 작곡가로, 탁월한 피아노 실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서정적인 곡으로 알려져 있지만 '피아노 협주곡 3번' 등은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만큼 최고 난이도로 꼽힌다.

먼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 단란조가 막을 올리고 '교향곡 제2번 마란조' 등을 감상할 수 있다. 광주베누스토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맡고 피아노 협연자 조민정이 오를 예정.



작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진행한 베누스토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베누스토 오케스트라 제공>

상임지휘자 강재진은 경희대 기악과를 졸업했으며,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했다. 폴란드 쇼팽음악원 석사, 모스크바 국립문화예술대학 박사과정을 졸업한 뒤 광주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악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전남과 현대 음악과에서 관현악 지휘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피아노 협연자 조민정은 전남대 예술대 음대,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립음대 석사과정과 최고연

주자과정을 졸업했다. 그동안 광주시향, 골드필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했으며 전남대, 인천예고 등에 출강하고 있다.

강재진 지휘자는 "라흐마니노프 탄생 150주년을 맞아 가을 서정, 낭만이 어우러진 그의 곡들을 조망하는 자리"라며 "클래식 명곡들을 감상하며 '10월의 어느 멋진 날'을 공연장에서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무료 초대 공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아름다운 전라도말 자랑대회'

광주역사민속박물관, 28일 신창동 마한유적체험관

지역에는 오랫동안 지역민들과 함께 해온 고유 언어가 있다. 전라도에도 남도인들의 생각과 삶이 담긴 특유의 언어가 있다. 지역어는 특정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신문화의 보고다.

아름다운 전라도말 자랑대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관장 최경화)은 '제11회 아름다운 전라도말 자랑대회'를 오는 28일 오후 2시 신창동 마한유적체험관에서 연다. 월간 전라도닷컴이 함께 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전라도말을 귀하게 대접하고 지키고 이어가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진행돼왔다.

마당극 배우 지정남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는 누구나 방청할 수 있다. '전라도말 알아맞히

기' 등을 통해 제철 과일, 유기농 쌀 등 푸짐한 선물이 받을 수 있으며 송혜원·지나희·박미정 등 젊은 소리꾼들의 흥겨운 공연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사전 심사를 통과한 참가자 11개 팀이 큰 인기와 살가운 전라도말을 풀어낼 예정이다. 대상인 '질로존상'(상금 100만원) 외 '영판오진상', '오매오진상', '뽕야오진상', 등 수상자 전원에게 상금이 수여된다. 우리웃 한복을 가장 곱게 차려입은 방청객 1명에게는 '웃맵시상'도 수여한다.

최경화 관장은 "이번 대회는 우리 전라도말을 아끼고 지켜가기 위해 마련했다"며 "전라도의 얼과 문화, 역사가 녹아있는 전라도말의 가치와 정신을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갈라강판 지붕공사

징크판넬시공

창호(삿시)교체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농막

옥상스틸방수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원2길3(서원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